



눈송이의 **숙대** 정복
행정학과 학생회 부서&학회 편

행정학과 학생회 구성



**행정학과 학생회는 회장단을 중심으로
모의국무회의, 문화편집부, 홍보부 세 부서의
부장단, 차장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부서의 부장, 차장은 두 명씩이며,
3월 개강 후 부서별로 부원 모집이 끝나고
부원 중에서 차장을 선발하게 됩니다.**

회장단

2

모국 부,차장

4

문편 부,차장

4

홍보 부,차장

4

모의국무회의



모의국무회의 부서는 모국 부원들이 정부의 각료가 되어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는 내용의 연극인 '청파민국
모의국무회의' 를 구성합니다. 9월에 열리는 모의국무회의를
위해 모국 부원들은 한 학기 동안 **스터디**를 진행합니다.
시사 문제 토론을 통한 지적 성장, 우리가 만드는 무대.
모의국무회의 와 함께해요!

문화편집부



문화편집부는 행정학과 1년간의 기록을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행정학과 행사가 있는 날이면 학우들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는 것이 문편의 가장 큰 업무입니다. 그 밖에도, 영상, 모국지, 모임터지, 레터지 등을 제작하며 행정학과 일기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편집부와 함께
행정학과 추억을 기록해보아요!



홍보부

[모의국무회의 주제 투표 결과]

지난 간식 배부 때 진행되었던
모의국무회의 주제 투표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소년법 개정 90표(75%),

검경 수사권 조정 29표(24.1%),

기타 1표(0.9%)로 '소년법 개정'이

올해 모의 주제로 선정되었습니다.

투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모의국무회의 준비위원회 -

또한, 행정인의 밤이나 모의국무회의 등의
행사가 있을 때, 학우들의 참여를 도모할
수 있도록 포스터의 도안을 제작합니다.

홍보부와 함께 행정학과의
하루하루를 그려나가요!

홍보부는 행정학과의 행사를 홍보하고
학과의 소식을 전달 합니다.
홍보부는 다양한 정보들을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며 행정 학우들과
소통할 방안을 모색합니다.

'숙명의 민주주의'의 역사는 숙명인이 만든다.

- 숙명의 총장선출제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젊은 오직 숙명인들에게만 존재한다 -

숙명의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하여 행정학과 제 21대 학생회 '총장선출'은 숙명인들에게 주어진 기회이다. '학생회가 총장직선제'는 숙명 민주주의 실현의 시작점이 될 것이다. 총장직선제는 대학 민주주의에 기여하고 학교의 다양한 계획과 행동을 실현시키는 도구이다. 행정의 민주성을 제고시켜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 목표인 행정학과로서, 이러한 중요한 사안에 목소리를 내고자 한다.

현재 숙명여자대학교의 총장은 임명과정 전임교원이었던 교수회에서 후보를 선출하고, 최종적으로 총인 20명의 후보자가 아니라 1인씩을 배워서 총장을 선출하는 방법을 통해 뽑히고 있다. 우리 학교의 '대외'인 총장이 학생들의 의견에 대해서도 제 표현권 등을 갖고 있는 문제가 있다. 현재, 행정 총장선거는 임의 규정을 근거로 진행되는 교수들의 반목에 인가당첨이, 선거의 공정성 문제가 있다. 둘째, 학교 운영 과정에 학생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지 않는다. 행정 총장선출제도는 학교 운영에 있어 학교의 주인인 학생이 주인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교수와 일부 운영위원들이 주인공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총장은 자신을 총장인, 혹은 다중체로 자신을 총장 총 사명들에게만 '잘 보아'는 것은 구문에 놓여있기 때문에 후보들도 없는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교수들이 말하는 정책을 이행하는 것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셋째, 학생들의 투표권이 직접적으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 즉, 이사회가 선출하는 20명 후보 중 최종으로 재학생이 차지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현재 숙명여자대학교에는 총장직선제가 필요하다. 우리는 행정학과 총장직선제가 필요함을 알았다. 학생들의 권리를 보았고 학교 운영 과정에 학생들이 참여하게 된다 민주적이고 건강한 학교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대외부터 총장선거 '오늘'을 비롯한 우리는 다름과 같은 노력을 했다. 총장직선에 앞서는 부스 운영, 학생 참여의 1인 시위, 총장직선에 참여를 위한 대외로 게시, 한수어 게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무력을 했다. 그러나, 학교는 이에 거의 아무런 대안도 없이 계속적인 개선을 요구하며 끝이 없다.

5월 22일, 농성장에서 진행된 전체학생총회에 학생인들이 많이 있어 총장직선제에 대한 관심과 열의를 보았다. 학교 전부는 경각심을 갖고 총장직선에 노력을 시작할 것이다. 전체학생총회는 숙명인의 권리를 계속적으로 행사함으로써 학내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행정 총장선출제도를 개선할 촉구하고 진정한 숙명의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기회이다.

그러므로 5월 22일 농성 5시, 농성장에서 진행된 전체학생총회에 참여해 함께 힘을 모아 보자!

우리가 원하는 숙명의 총장에게 참여해주길 바란다.

전체학생총회는 숙명여자 대학 민주주의 시작점을 밝히는 데 기여할 것이다.

숙명의 역사를 한 자리에서 지켜볼 수 있길 바란다.

행정학과 총장선출 학생회 일동



행정학과는 과 학생들이 함께 모여 다양한 활동을 하고,
전체학생총회에 함께 가는 문화를 만드는 것이 교육목표에 참여해주길 바란다.

학회 '혜웁'

행정학과의 유일한 학회인 '혜웁'은 '생각'의
순우리말입니다. 행정 학우들이 전공
지식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이슈를
접하고 함께 생각을 나누는 사고의 장을 마련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019년 1학기에는 탄력 근로제, 무인화,
노키즈존, 사형제 등의 이슈를 주제로
스터디를 진행했습니다.

사회의 무인화를 보여주는
무인 종합정보안내 시스템,
키오스크

영유아와 어린이를 동반한 고객의
출입을 제한하는 노키즈존(No Kids Zone)



학회 대항전



5월에는 '혜움'의 스터디팀이 모여 그동안 공부했던 주제들을 가지고 학회대항전을 진행합니다.

정해진 형식이 아니라 주제에 맞게 뉴스, 토크쇼, 오디션 등 다양한 형식으로 발표하여 여러 사회적 이슈를 쉽고 재밌게 접할 수 있습니다.

혜움과 함께 새학기를 보람차게 보내봐요!

눈송이의 **숙대** 정복기
행정학과 학생회 부서&학회 편
★ 정복 완료!

